건보, 재정건전성 비상… 2년 후 부채 자산보다 커진다

건강보험공단, 재무관리계획

올 자산 30.9조→2023년 29.3조
부채 13.2조→4년 후 16.7조 증가
2023년 부채비율 132.9% 전망

건강보험의 부채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면서 적립자산이 줄어드는 탓이다. 공단측은 서류상 겉으로 나타나는 "계획된 적자"라고 설명했다.

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자산은 2019년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감소한다. 현금과 금융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부채는 2019년 13조2000억원에서 4년 후 16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한 보험급여비가 늘면서 '충당부채'가 증가하는 탓이다. 충당부채는 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았지만 향후 지출될 금액을 반영한 부채를 말한다. 진료가 이루어졌지만 보험급여비 지급이 안된 경우, 미래에 지급할 보험급여비를 추정해 부채로 반영되는 것이다.

자산이 줄고 부채가 늘면서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0년 91.9%로, 2021년에는 102%로 늘어난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지는 셈이다. 부채비율은 계속 늘어나 2022년 119.9%, 2023년 132.9%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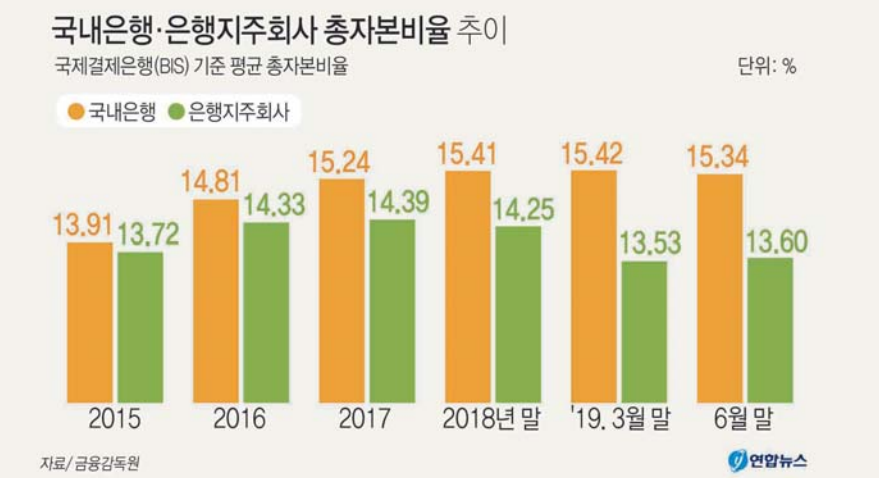
건보공단은 중장기 재무전망 결과,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로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꼽았다. 건보공단은 지난 7년 동안(2011~2017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현재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20조원의 적립금을 건강 보장성(혜택)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지속적 요구에 맞춰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평균 3.2%)과 정부지원금 확대,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한 보장성 확대 정책을 2017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런 정책에 따라 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건보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것이다.

건보공단은 어디까지나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공단 부채는 현금흐름상 실제 지출과는 무관한 '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 증가는 오히려 보장성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로 나타나 결국 국민 혜택으로 돌아간다"며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인터넷은행 자본비율 하락 '비상'

대형 은행은 14~16% 유지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5.34%, 13.28%, 12.71% 및 6.51%다. 전분기 말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규제비율 기준으로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2분기 중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이 2.3%로 자본 증가율(총자본 기준) 1.8%를 소폭 웃돌았다.

신한·우리·하나·국민·농협 등 대형 은행(D-SIB)을 비롯한 주요 은행의 총자본비율은 14~16%를 유지했다. 모든 은행이 완충자본을 포함한 규제비율을 웃돌았지만 은행별로 온도차는 있었다.

신한·전북·광주 등 9개 은행은 자본 확충 등으로 전분기 말 대비 총자본비율이 상승한 반면 케이·카카오·우리 등 10개 은행은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총자본비율이 하락했다. 특히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총자본비율은 각각 11.74%, 10.62%로 국내은행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은행지주회사의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3.60%, 12.24%, 11.40% 및 5.72%로 집계됐다. 전분기 말 대비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0.07%포인트, 0.05%포인트 상승했지만 보통주자본비율은 소폭 하락했다.

모든 은행지주회사가 완충자본을 포함한 규제비율을 상회했다.

KB·하나·신한·농협 등 대형 지주회사(D-SIB)의 총자본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주(11.08%)와 한국투자지주(10.64%)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기업 예상수익 39조… 현실은 반토막

>> 1면 '위기의 한국경제…'서 계속

전년보다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73개로 전체의 절반(56.6%)에 불과했다.

연 초 전망치와 비교해도 하락세는 가파르다. 기업 경영 환경이 예상보다 더 악화됐다는 이야기다. 연 초만 해도 이들 기업은 39조1357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실제 성적표는 반토막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각각 60.6%, 93.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 경제 회복세가 완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외국인의 주식 매도는 이어질 것"이라면서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호재는 미·중 무역분쟁 종료"라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금융위, 내년예산 3.1조… 혁신금융 등 지원

전년 1424억 대비 4.8% 증가
공적자금상환에 2.1조 등 편성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3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000억원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금융위는 출자사업을 위주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전년 대비 4.8%(1424억원) 증가한 3조1000억원 규모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산편성안의 지출구조를 보면 공적자금 상환에 2조1000억원, 혁신금융에 5058억원, 포용금융에 2550억원을 쓸 예정이다. 금융위 행정 효율성을 위해 30억7500만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우선 금융위는 혁신모험펀드 조성으로 중소 벤처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자금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에 3000억원을 출자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맞춰 미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설투자에 1360억원도 공급된다.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500억원을 출자한다. 회수 지원기구를 설치, 동산담보가 적시에 처분될 수 있도록 보장해 동산금융 공급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서도 전년대비 97억원 늘어난 198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포용금융을 위해 기업은행에 2400억원을 출자한다. 기업은행은 이 돈을 포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1조2000억원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에 1조원의 특별대출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도 지원한다. 저금리 생활자금 1000억원을 공급해 대학생 청년층이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행정 효율화를 위해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29억원, 해외국가의 법령정보 입법동향을 제공하기위해 1억7500만원을 투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네이버, 세계관세기구에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

위버시스템즈와 협력… 韓 첫 사례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은 IT 솔루션 전문기업 위버시스템즈와 협력해 세계관세기구(WCO)에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세계관세기구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로, 현재 전 세계 총 17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세에 관한 국제 협약개발, 상품분류, 관세평가, 관세 세입징수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수행한다.

NBP는 세계관세기구가 진행하고 있는 '세계관세기구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네이버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가 국제기구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첫번째 사례다.

/네이버

세계관세기구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택한 이유는 많은 글로벌 리전을 보유하고 있어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없으며, 미국 CSA(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 스타 골드 등 국내외 수많은 보안 인증을 보유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특히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글로벌 리전은 독일, 미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위치해있고, 이 리전들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초저지연 반응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다.

NBP 임태건 상무는 "해외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과 경쟁하며 아프리카와 프랑스, 벨기에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독일 리전의 빠른 속도와 타이트한 기술 지원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온전히 해외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고객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많은 글로벌 고객사를 유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8년에 NBP와 매니지드 서비스 공급자(MSP) 파트너십을 맺은 위버시스템즈 최병무 대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세계관세기구에 공급하는 것을 계기로 삼아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가 글로벌 서비스에도 최적의 서비스가 되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국내 서비스 들이 해외를 무대로 비즈니스를 펼칠 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